

“1Hour 영주” 수도권과 거리 좁힌다

KTX이음 개통에 따른 영주의 새로운 시대 개막

영주시는 중앙선 복선전철 신형 'KTX-이음'이 지난 5일 첫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영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통 물놀이 마을의 특성을 간직한 무섬마을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영주역 순환교통 체계마련, 관광지 교통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광복로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구성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까지 뻗어나가는 국제 거점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남북 화물열차의 주 거점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써 영주역의 역할이 커질 것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문가를 비롯한 철도 관계자들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영주역을 국제철도역으로 발전시켜 철도거점도시 영주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칼럼] 노래방 여주인의 쓸쓸한 죽음

오늘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은조가 영하 15도를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차가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얼마 전 경기도 안산의 노래방 화재사건이 상기되는 건 여전히 한국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열악하다는 걸 여실이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대표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직종이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라도 막상 타 업종과는 달리 사치나 위락업종으로 치부되면서 같은 피해상황에 미운오리취침을 받았다.

로 발생한 화재였다. 잠자던 여주인은 유독가스를 마시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열흘간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부산시, '부산형 일자리'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

"동남권 미래차산업 동반성장 선도한다"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최종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코렌스 EM은 독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공동으로 전기차 구동 유닛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양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미래차산업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남영경기자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featuring various food products and a large 'FOOD' graphic.

###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수상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 개정,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선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지원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보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는 등의 주요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다.

평소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조성... 황대호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9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을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및 대학 지자체 등과 함께 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는 기존 조례 제정 이후에도 고졸자에 대한 취업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등조차도 고졸자 취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구하고 "전문적 자격을 요하지 않는 일반

적인 일자리의 경우엔 과도한 학력 스펙이 오히려 고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과도한 학력 스펙을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대호 의원은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일자리,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수원형 도제 교육과 같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확

대하고 내실화를 통해 내 고장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약식으로 개최됐으며 황대호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수상자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최정근/기자

### 충남도의의회, 충혼탑 참배로 새해 첫 일정 시작



4일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찾아 헌화·분향...감염병 종식, 도민 안녕 기원

충남도의의회는 4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에는 김명선 의장과 전의현·조길연 1·2부의장, 홍기후 의회운영위원장, 안장현 기획경제

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장, 이종화·조승만·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신동현 신임 의회사무처장 등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분향과 묵념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충남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김 의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도민들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

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장은 "성실과 인내, 여유와 평화의 상징인 '하얀 소'의 해를 맞아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의원 42명 모두가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해야

김은혜 의원, 일명 '세금폭탄방지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품주증세·과잉행정을 입법부의 권능과 기능으로 막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광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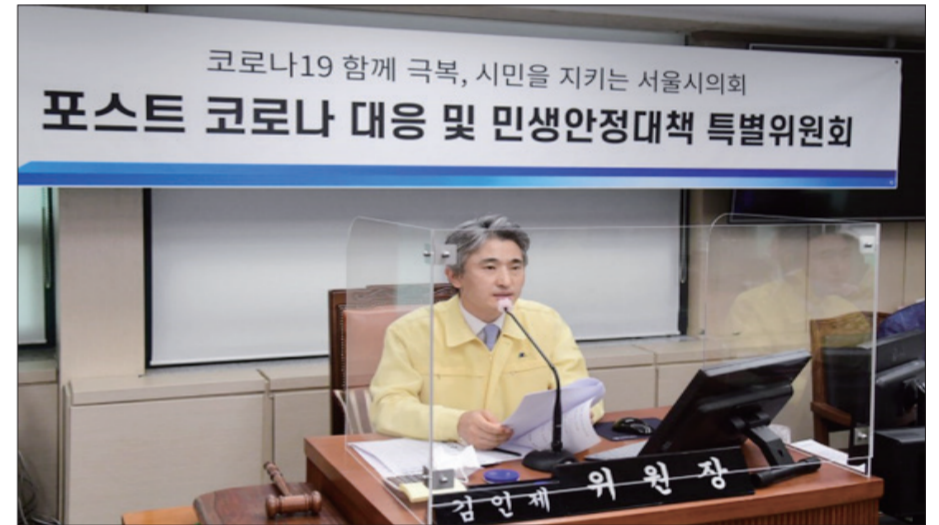
###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

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구 독 신 정, 배 달 안 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 2060-4147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지역경제와 가정을 위한 착한 소비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구매처: 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구매(충전)
사용처: QR코드 비치 가맹점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구매(충전)
사용처: 카드단말기가 있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 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최종선정... 전국 최대 지방정부 위상 반영

###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이후 GI 및 영문 슬로건 공식 사용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표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하게 됐다. 이사회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오롯이 담긴 대표상징물을 통해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대표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소개했다. 새로운 GI는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 '기, 구, 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기, 구, 도'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기, 구, 도'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기'는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위상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구'는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하

단의 위상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오른쪽의 '도'는 경기도의 '도'를 뜻하며 하단의 수평 이미지는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GI 디자인의 색상으로 사용된 경기 초록은 자연, 공존, 친환경, 평화를 표현하며 경기 파랑은 신뢰, 에너지, 미래가치를 나타낸다.

영문 슬로건 'Go Great, Gyeonggi'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도민과 함께 번영해나가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경기도의 영문 이니셜인 G와 한글 초성 기를 결합해 도 정체성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영문 슬로건은 GI 디자인과 연계해 만들었으며 기술어진 이탤릭 서체를 통해 경기도의 역동성을 전달한다. 영문 슬로건은 대외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사용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최종 GI 디자인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경기도의 정체성 도출을 위한 키워드 찾기 및 사전전 이벤트, 브랜드 디자인 및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참신한 GI 디자인 아이디어가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최종 대표상징물은 도민 투표 40%, 전문가자문위원회 투표 40%,



디자인 평가단 투표 20%를 총 집계해 선정했다. 영문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과 원어인 대상 사용성 검증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GI 디자인 및 영문 슬로건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며 도민과 함께하는 대표상징물로 자리 잡게 할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 오산시보건소, 토요 언택트 금연클리닉 운영

오산시보건소는 평일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방문이 힘든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9일부터 '토요 언택트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은 폐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및 다른 질병에 대한 대응을 방해하고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도 및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토요 언택트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게시판 및 오산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은 등록서류를 작성해 메일 및 팩스를 통해 제출한 후,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일을 사전 예약하고 워크스루 방식으로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방문 수령해 이용할 수 있다.

등록 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금연서비스를 지원받고 금연 성공 시에는 성공기념품도 지급된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토요 언택트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하남도시공사, '하남사랑애나눔' 성금 2147만원 기탁

하남시가 추진하는 이웃돕기 캠페인 '하남 사랑애나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에서 '하남 사랑애나눔'에 성금 2,147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남근 하남시 부시장을 비롯, 하남도시공사 안충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충식 본부장은 "하남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부시장은

"따뜻한 나눔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금 기탁도 이어졌다. 하남시청 회계과 석인학 주무관은 제22회 경기도 공무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중 100만원을 기탁했다. 석인학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 "더 살기 좋은 하남시 만들 것"

하남시는 전국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안전지수' 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위, 전국 27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수원 등 4개 지자체가 상위 30위 내 그룹에 포함됐으며 그 뒤를 구리가 이었다.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는 공통적으로 안정적 소득 수준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4개 분야에 대해 시에서 재분석한 결과, 하남시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인당 소득 및 소득 만족도'와 '노후준비 가구 비율 및 노후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건강보전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여유와 건강관리 지수와 연계된 '주요 질환 사망률 및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이 전체 조사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에서 지표가 낮은 점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과 보육·문화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이 편리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도시 조성'을 강조, 관련 정책을 올해 집중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며 "조사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부족한 점을 집중 보완하고 더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 패널 조사기업 피앤아이, 경제전문매체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인구 등 표본 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분야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전,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였고 통계청 등 공인자료 외에도 '지역 주민체감도'를 직접 측정해 객관성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영근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 자치분권 2.0 시대 앞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5일 구청장실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시작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과 함께 시작한다"고 적힌 판넬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황인홍 무주군수,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을 지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수십년 간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경주선언', '풀뿌리 중심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 촉구 결의' 등을 이끌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해 왔다.

최만식기자



# 배우 김영철과 함께하는 소사도시재생지역 한바퀴

### 1월 9일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 편' 방영

2021년 1월 9일 오후 7시 10분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제104회에서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 편이 방영된다.

부천시는 2016년 소사본동 노후화 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소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해왔다.

도시재생과는 유명 방송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유치해 전국에 소사 도시재생사업지를 비롯해 부천의 방방곡곡 이야기를 소개한다.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

편에서는 만화박물관과 부천중앙공원을 시작으로 심곡천, 소사 도시재생사업지 '정지용 향수길'과 '소사공간'을 그려낸다. 또한, 진영중학교 만학도 할머니, 가짜 이모 조카의 만드 집, 은주전자 장인 등 다양한 부천시민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은 "부천 소사본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거리와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한 지역"이라며 "이번 방송이 소사 도시재생사업지를 전국적으로



로 홍보해 도시재생 선진지로서도 약하고 더 나아가 부천시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수원시, '20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온라인으로 알린다

## '202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소개 영상, 4일부터 수원시 유튜브에 게시

수원시가 '20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온라인으로 알린다. 수원시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4일부터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개요, 추진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202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공동체 성장', '마을공동체 씨앗' 등 3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사업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조사 마을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주제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 성장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돌봄, 자원 순환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씨앗은 새내기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공동체모임 형성 등을 지원한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심사,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



판에서 '마을공동체'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17~19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원시 자치행정과,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주민

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영상은 2월 10일까지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활동, 비대면 마을문제 공론화 등 109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했다.

최정근기자

# 윤화섭 시장, 노숙 농성하는 세월호 유족 만나 격려



## 윤화섭 시장 "추운 날씨에 건강 걱정...항상 함께하고 응원할 것"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장은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유가족에게 "어떻게든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컵떡국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하던 유가족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추운 날씨에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할 것이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들의 바람에 항상 함께하고 응원할 것이며 안산시에서 이뤄지는 추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안양시, 지난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이유 있었네

## 최대호 시장, 4일 유공 SNS시민기자단원 3명 표창

안양시 SNS시민기자단원 3명이 4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활동 유공 표창을 수여받았다. SNS시민기자단은 개인 SNS활동이 왕성한 남녀시민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2년 3월 첫 출범, 시정의 주요 행사와 생활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취재해 시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SNS기자단원의 역할이다. 이번 영예의 수상자는 김미선·김숙경·오경숙 기자,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도 시정의 주요시책, 지역 곳곳을 취재해 얻은 훈훈한 미담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시 공식 SNS로 담아냈다. 특히 김미선 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SNS의 조회 수가 매우 많았다. 김숙경 기자의 몸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이들을 위해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홈 쿠킹 콘텐츠를 포스팅 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오경숙 기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관내 주요 관광명소들을 주로 취재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안양을 알리는데 주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표창을 수여하고 안양시가 지난해 제13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한 것은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컸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올해도 안양의 이모저모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최정부기자



# IOK컴퍼니, 2억원 상당 마스크 및 내의류 '통큰'기탁

IOK컴퍼니는 5일 관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2억원 상당의 마스크 및 내의류를 기탁했다. 장진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와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대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와 내의류를 함께 기탁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코로나19를 극복 및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에 한파까지 겹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국에 마스크와 내의류를 기탁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후원이 보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 안성시,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2곳 추가 선정...업체 6개로 늘어

## 주민주도의 관광사업체 육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 안성시와 안성관광두레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2곳의 신규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관광두레 사업'은 관광두레 PD와 협력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생적·협력적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김도영·이진희 관광두레PD와 함께 관광두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4개소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 중에 있다. 안성시와 김도영·이진희 관광두레PD는 지역 내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중에서 관광분야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 2개소를 발굴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했으며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주민사업체 올드타임과 보개바람이 최종 선정됐다. 올드타임은 1960~80년대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과 참고형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사업체

로 근현대사를 살아온 장년층에게는 과거의 향수와 순수했던 추억을 선물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 세대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개바람은 노후화된 기존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로컬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주민사업체로 현대도 개조된 공간 옆에 도정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안에서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이색 카페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두레사업 추진 주민사업체 '올드타임'과 '보개바람'은 앞으로 최대 3년간 핵심 사업 계획 수립, 구성원 역량강화, 신상품 개발, 파일럿 사업, 홍보마케팅 등에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과 연계한 안성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지역기반형관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변화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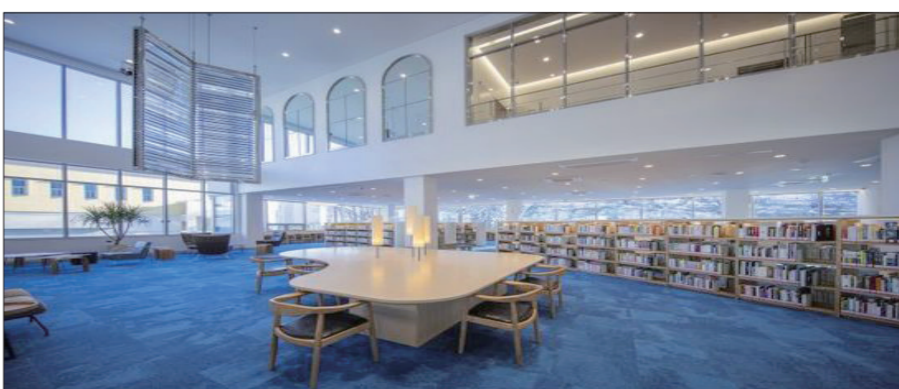


# 남양주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오는 14일 개관

남양주시는 오는 14일 전국 최초 뉴미디어 도서관인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옆 진영근린공원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남양주시에 13번째로 들어서는 공공도서관으로 기존 도서관에서 만날 수 없었던 차별화된 뉴미디어 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져 정약용도서관을 잇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명칭은 남양주 일대에 보유했던 토지를 모두 팔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으로 정했다. 14일 열리는 개관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동

시 진행되며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현장인원을 최소화하고 ZOOM,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찾아간다. 실시간 랜선 개관식에는 팬텀싱어 출연진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14일 오전 10시 15분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MY-N TV'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시설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관하게 되어 아쉽지만 정상개관 전까지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 안산시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한 홈페이지 구축

안산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아이 LOVE YOU'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6일 밝혔다. 지난 1일 개설된 웹사이트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의료시설·돌봄시설·수유시설 등의 지역정보, 교육·행사 등 모든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분류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임신준비 임신

중 출산 육아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각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자녀수, 소득에 따른 선택형 맞춤 검색도 가능하다. 각종 육아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아빠놀이카드' 정보도 담겨져 아빠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습득만을 위한 웹서비스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통

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참여 공간도 제공돼, SNS 간편 로그인을 통한 소통방, 따뜻한 한마디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출산·양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한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LOVE YOU' 사이트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거나, [www.ansan.go.kr/iloveyou](http://www.ansan.go.kr/iloveyou)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화면으로도 최적화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출산,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62곳 전수검사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한 평화동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해 선제검사 나설 것

최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번째 전수검사를 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8일까지 고위험군 시설 162곳의 종사자 6365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

험군의 안전을 지키고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수검사 방식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진행되며 추가보호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실시된 전수검사 결과, 총 1041개소 2만1776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온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확진자들의 동선이 다수 발생한 평화동 지역에 5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평화동 지역 내 수

어 있는 무증상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덕진 선별진료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화산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김송일/기자

# 창원시, 마산권역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변경 본격 시행

1/4분기까지 재활용품 배출 안전 정착으로 시민의 질 향상 기대

창원시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를 만들어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원순환도시 전환을 위해 1일부터 마산권역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가 본격 변경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마산권역 재활용품은 신규 수거대행업체 유림환경에서 품목별, 지역별로 주5회 수거하며 비압착 수거방식으로 전격 개선됐다.

기존 방식은 전 지역 전 품목 수요일 주 1회 일괄 배출로 인해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해 이물질 함유도 많고 자원의 선별률이 낮으며 압착 수거로 재활용률이 낮아 순환과 자원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새로이 달라지는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홍보 도우미, 홍보전단지, 전광판,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상가와 주택을 직접 방문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했다. 시행 첫 배출일인 3일 일요일부터 수거일 4일 일요일에는 배출·수거실태를 집중 현장 점검했다. 현장 점검결과, 대체로 변경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에 대



해 이통장, 홍보 도우미를 통해 전달 받아 알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정착단계로 일요일에는 페트병, 비닐류만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 배출하고 음식물이나 재활용이 안되는 생활쓰레기가 혼합되는 등 혼선을 보였다. 시는 지속적으로 배출·수거실태를 현장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1/4분기 내로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켜 마산지역 시민들의 삶이플러스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문의는 창

원시 자원순환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거에 대한 문의는 수거업체인 유림환경이며 재활용품 배출요령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시행 초기라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의 혼란과 문의가 많으나 정착 후에는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시민들도 주2회 배출해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숙지해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 고양시, 음식점 대상 코로나19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 집중점검 실시

고양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관내 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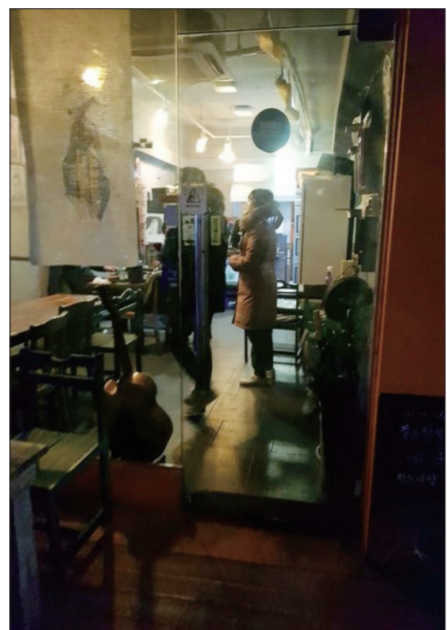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페스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에 소재한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강화된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포장판매 외에 오후 9시 이후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해 오후 9시 이후에도 음식 등을 판매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을 비롯해, 집합제한 조치 대상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 관계자 분들과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 홍성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홍성군이 동절기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10만 군민 모두 따뜻한 겨울나기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동절기 난방비 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일용직 등 계절형 실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강화에 힘쓴다는 것.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지원기간을 집중 운영해 계절실업자,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민간자원 등을 연계 및 지원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3억 34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

다. 34종의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2,209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를 진행했으며 844명의 명에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 선제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난방용품,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민간자원, 일자리 제공 등의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를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돌봄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군은 동절기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3월 말까지 '동절기 노숙 현장 순찰 활동'을 추진한다.

대응반은 노숙인의 귀가와 자활시설 안내, 의료비 지원 등 노숙인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

다. 홍성군 관계자는 "최근 한파의 날씨가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견 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복지정책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시,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키로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농경지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 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 유기물 분해자 등 미생물은 8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농촌지역 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을 알리고 불법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 해왔다. 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61개 마을에서 84톤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수거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영농회장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광명시, 임시선별검사소 선제 검사로 확진자 28명 조기 발견...17일까지 연장 운영

### 광명시민운동장, KTX광명역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 25명 찾아내

광명시는 코로나19 무증상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2차 감염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14일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당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1월 3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17일까지 2주 더 연장 운영한다.광명시는 광명시민운동장과 충현역사공원 두 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오다 충현역사공원의 임시선별검사소를 KTX광명역으로 옮겨 운영했으며 광명동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오는 6일 다시 광명초등학교로 이전해 운영한다.1월 5일 0시 기준 광명시민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7782건, KTX광명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5670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선제적 검사로 25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했다.또한 광명시는 소하동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으며 179건 검사 결과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한 시민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 격리해야 한다.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및 임시선별

진료소 이용 문의는 광명시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으로 전화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 “추운 날씨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직원, 군인, 경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선제적 검사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연쇄 감염 고리를 끊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이 제안·운영한다

### 수원시·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참여 시민 모집

수원시·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2021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을공동체·환경·도시재생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 계획 수립·실행·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공모 분야는 수원시가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물환경 도시재생 등이다.사업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마을공동체 활동' 분야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등 활동, '마을공동체 씨앗' 분야는 새내기 마을공동체 활동, '성장' 분야는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거나 돌봄·자원순환·환경개선 마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물환경'은 보호종 조사, 생태계 지킴 사업 등 생태계 보전·복원 활동, '도시재생'은 대상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시민은 누구나 단체·모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사업 제안서·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7~19일 공모 분야

**2021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모집기간: 2021.02.17.(수) ~ 02.19.(금)

**공모분야**

- 마을공동체분야
- 물환경분야
- 도시재생분야

**신청자격**

3명 이상의 수원시민 모임

- 특정지역공모는 대상지 생활권지
- 단 마을공동체 성장 활동은 10인 이상 신청가능 (유형별 지원대상 참고)

**접수방법**

일반공모: 다형파크 1층 대형사민방 (수원시 권산구 수인로126, 구가동진출점)

특정지역공모: 각 대상지 도시재생현장센터

**추진절차 및 일정**

2021.1월 19일	2021.1월 20일	2021.2.17~2.19	2021.2월 19일	2021.3월 10일
신청서 접수	모집공고 사전안내	신청서 제출	사업 최종 선정	사업개시서 제출
2021.3월 10일	2021.3월 10일	2021.11월 30	2021.11월 30	
사업비 수령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성과공유회	

별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에 게시된 '2021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

는 시민들의 접근성 확대·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수원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고양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복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시행

###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오가닉 소재 아기용품 지원

고양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선물하는 '다복꾸러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자녀가정 혜택 다양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다복함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다복꾸러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다복꾸러미'는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손수 만든 아기용품 7종으로 구성되며 모두 신생아에게 무해한 친환경 오가닉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물품들이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해 시작한 다복꾸러미 사업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담아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 선물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과 세대 간 통합 등 여러 분야의 시

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 이천시,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과 함께 새해 다짐으로 출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천시가 신축된 새해를 맞아 2021년 1월 5일 종합민원실 입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한 의회의장, 종합민원실 간부공무원 및 플러스봉사단, 전철미소망,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또 민원실내 현판을 부착해 시민

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의미로 마련됐다.이천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안내도우미 배치로 밀착안내 서비스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사회배려자 전용창구, 낮출형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48명의 민원플러스 봉사단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민원인을 방문부터 처리까지 동행하는 민원서비스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도 큰 호

응을 얻어 왔다.올 해는 특히 사회배려자와 시정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 민원상담관을 채용해 2월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임태준 이천시장은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와 플러스봉사단이 올 한해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오래된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까 말까? 경기도에 물어보세요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시작. 대상단지 공모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회 각종 증명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

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

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약,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왔다.이중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획득

공공건축물로는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오는 4월 개관 예정인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이 공공건축물로는 전국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 1등급을 획득했다.제로에너지 1등급이란 높은 에너지효율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이 동일해 에너지 자립률이 100%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왕배푸른숲도서관은 태양광설비용량 163kw, 자동제어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원격검침설비 등을 갖추고 기밀테이프 등 시공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117%까지 높였다.또한 실내는 도심 속 숲을 모티브로 자작나무와 실내 조경 등으로 꾸며졌으며 가변성 있는 서가와 풀딩 도어 등으로 각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왕배푸른숲도서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를 실현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첫

번째 건축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고효율, 친환경 건축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왕배푸른숲도서관은 화성시 산적동 753번지 왕배산 제1호 근린공원 일원에

85억 5천여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2.51㎡, 지상 2층 규모로 자료실과 커뮤니티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오는 4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 서산시, 2020년 환경안전 관리 잘했다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주관 2020년 환경안전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서산시가 충청남도 주관 '2020년 환경안전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등 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 역량에 대해 이뤄졌다.시는 지난해 추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기타 환경정책 우수사례 등 환경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 받았다.특히 전국 최초 화학물질 안전운송 체계 및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과 화학사고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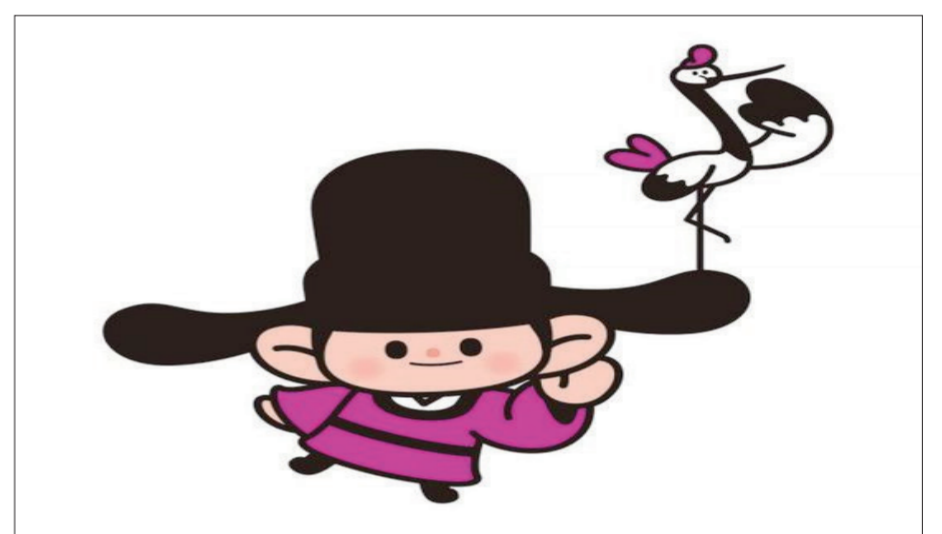
재난 책임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총합 토크기반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주요했다.맹정호 서산시장은 "환경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시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의정부시, SNS 홍보용 캐릭터 개발

의정부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SNS 홍보용 캐릭터 '의돌이와 하기' 개발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돌이와 하기'는 의정부시가 시민들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 개발한 캐릭터로 600년전 과거에서 의돌이와 하기가 함께 의정부로 날아와 시간여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담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의돌이와 하기' 개발을 완료, 12월 21일 의정부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카드뉴스 '의돌이와 하기의 시간여행 in 의정부'를 통해 새로워진 캐릭터를 공개했고 12월 23일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했다.향후 인형탈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대형인형으로 포토존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SNS 이벤트를 실시해 이모티콘 및 홍보용품 배부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의돌이와 하기'는 의정부시 공식

SNS에서 의정부시의 시정소식과 다양한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김영근/기자

### 안성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시행 안내

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 규칙에 의거 가족관계, 기본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신규로 추가되는 특정증명서는 8종이며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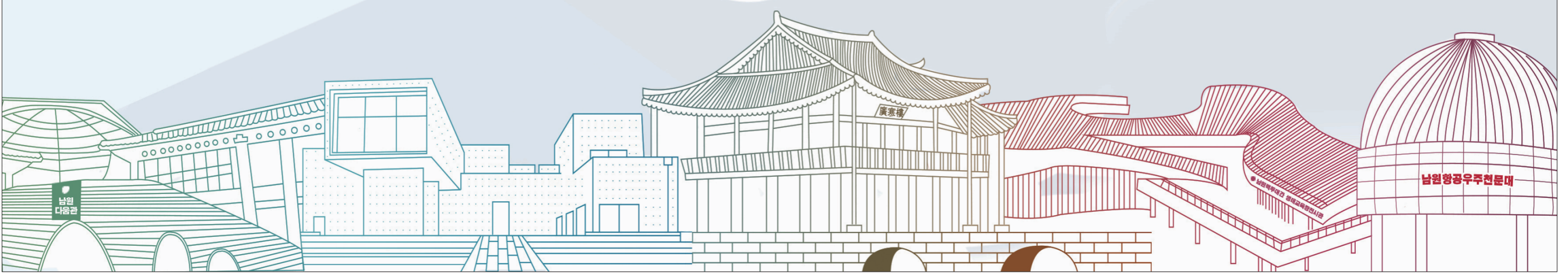
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특정증명서 제도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록되게 할 수 있다.이결필 토지민원과장은 "이제부터 증명서 발급 시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는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 김경수 “위기에 도민들 쓰러지지 않게 행정과공직자 역할 최선”

### 4일 경상남도 시무식... 영상회의 통한 새해인사로 간소하게 진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일성으로 “위기에 도민들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과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시무식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위기 때마다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께서 이런 일시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 시에 도민들께 행정력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해로 만

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한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중요성”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늘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 눈과 귀를 열어두고 뭐가 불편한지 어디가 힘든지, 아픈지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사회적 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역과 함께 민생경제도 동시에 챙기면서 도민들께 힘을 줄 수 있는 도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예년처럼 대강당 행사가 아닌 청내방송을 통해 직원들과 만난 김 지사는 1년간 이어진 코로나 대응 비상근무, 3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정 사상 첫 당초예산 10조



원 시대, 뉴딜사업 발굴, 부울경 협력사업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청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04년 해직 이후 17년 만에 복직한 이병하 주무관에게는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 날 시무식 전 국립3·15민주묘지와 창원충혼탑을 찾아 참배한 김 지사는 오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도 도정의 운영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 산청군 ‘新 인구지표’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전국 1위

### 정주여건·교육환경·일자리 등 인구정책 주력

산청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 지역경쟁력지수’ 평가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각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해에 처음 개발됐다. 산출 방법은 인구 비율 대비 2차녀 이상 출생률로 계산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지역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1’ 보다 낮은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산청군의 지수 값은 2.6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청군에 이어 전남 보성군과 신안군, 고흥군, 경남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2 이상으로 나온 곳은 모두 19곳으로 모두 군 단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각 지역의 인구 증감 추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외에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기존에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에서 처음 쓰인 개념으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가 넘는 값이다. 연구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국내 각 지역의 인구 변동 문제를 왜곡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은 소멸

위험지수가 0.168에 불과해 지금까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서는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산청군은 지난 2020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서 전국 셋째로 출생 비중이 20%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았다. 산청군에서는 2번째로 높았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 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제도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사업 출산·인신 축하용품 및 인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증대”며 “공립학원인 우정학사를 비롯해 거점기숙형 학교인 산청고·산청중학교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매월 지급형식 전환·확대를 비롯해 군내 모든 어린이집 공립화 운영 등으로 보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청 뿐 아니라 경남도 미래먹거리인 항노화산업 육성과 한방제약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등으로 인구유입을 꾀할 것”이라며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와 함께 산청을 150세대, 신안면 8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영기자

# 진주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사업 공모 선정

### 진주시 2개소 선정, 사업비 1억 400만원 확보

진주시는 2021년 경상남도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사업 공모에 작은도서관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11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중심, 수요자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3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중 초전동 마하어린이 도서관, 가좌동 낮은을타리 작은도서관 등 2개 기관이 선정되어 도비 52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확보했다.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평일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

생을 중심으로 독서지도 및 놀이지도, 간식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진주시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좌, 평거, 충무공동, 초장동 등 권역별 4개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완료해 마을 돌봄 운영 공간 확대 및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민선 7기의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고 학부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설치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근현대 공예의 효시이자 산실로 역사적 의미 커

통영시 향남동 소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됐다.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조선시대 통영의 12공방의 맥을 잇는 나전칠기 공예의 현장이다. 해방과 전쟁기를 거치며 나전칠기 전문 공예 교육이 실시된 곳으로 근현대 공예의 효시이자 산실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통영시는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보존·관리를 위해 2019년 10월 건물을 매입

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8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등록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10월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등록 예고사항이 가결, 11월에 문화재청 예고기간을 거쳐, 12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 최종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구역 내 위치한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를 설립취지에 맞게 근대역사와 문화예술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활용해 통영시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2021년에도 군민 행복 최우선” 나주시, 2021년 지역화폐 1000억원 발행한다

미래 가치 더하는 '새로운 장성'

장성군이 4일 '2021년 역적 사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 행복 추구'의 가치를 높이는 5대 핵심전략이 수립돼 이목이 집중됐다. 새해, 장성군은 가치 창출 지속 성장 행복 주는 복지·경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선도하는 부자농촌 군민 중심 안전·소통을 통해 전 분야에 걸친 고른 발전과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먼저, 군은 중장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장성형' 뉴딜 정책을 펼친다. 첨단3지구 내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센터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인공에 의료산업 기반이 조성되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성 동·서부를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설, 대규모 주거단지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모형 구상 등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지원 조성 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엘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 등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시책도 추진해 예술적인 색채도시를 완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인다. 아울러 노인회관과 가족센터를 신축하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고령 주민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맞춤형 가정복지 추진, LH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



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등을 통해 사람과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한편 장성군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

노란꽃잔치와 10억 송이 꽃길로 유명한 황룡강은 '황룡강 관광 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테마정원과 노란예술센터 등을 설치한다. 또한 장성호 수변길은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사업 추진, 명품 산리휴양지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과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청

년농업인 육성, 기후변화 대응 황금과일 생산단지 조성, 안전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부자농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모든 분야의 발전은 '군민의 안전하 삶'이 전제되어야만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 장성군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방역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성능을 보강하고 군민안전보협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 장성군은 과감하고 끈질긴 도전정신과 애환심, 협업을 바탕으로 '장성의 힘'을 곳곳에서 발휘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한층 승화시켜 '새로운 장성'의 새로운 역사를 5만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1분기 상품권 구매액 10% 할인 지속, 법인 및 단체는 제외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품권 발행·유통액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판매분 507억원과 농어민 공익수당·취약계층 생계비·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책분 329억원 등 총 836억원 규모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됐다. 시는 올해 1분기 지류·카드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권 발행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내 상품권 가맹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효과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최근 몇 년 간 상품권 판매액 증가세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지난해 2018년 17억원, 2019년에는 41억원 규모 상품권이 발행됐으나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에 따른 상품권 구매액 10%할인, 범시민적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전개, 카드상품권 발행 등에 힘입어 약 20배가 넘는 판매대행 달성했다. 시는 판매 대행점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다.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 관리·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류·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70만원 한도 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56개소에서 신청 당일 구매·발급되며 관

내 가맹점 3100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상품권 이용하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에 힘입어 코로나 위기를 맞은 우리 지역 골목상권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며 "2021년 새해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품권 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새로운 해남의 비전 열매 맺는 신청사 시대 개막”

해남군은 4일 시무식을 갖고 코로나를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 '청정해남'의 가치를 군정의 전 분야로 확산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께 드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0년 해남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청정자연, 청정농수산물과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고 청렴도로 증명된 청정행정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청정 일번지 해남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며 "2021년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빛나는 해남, 새로운 해남의 비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보호시의 각오로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정 자연을 비교우위로 한 농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권역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육성, 전 세대에 걸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분야별 군정의 발전 방향을 밝히고 역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 이후 청정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는 농수산물과 먹거리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군민 고소득 기반구축의 의지를 다졌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내실화와 고품질화,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의 발굴과 미래농업 기반구축 등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접목한 농어업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군지역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200억원 매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 푸드플랜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에 이어 올 상반기 해남읍에 직매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총 7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김산읍 특화단지 및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등 수산관련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400억원까지 발행규모를 확대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국도비 예산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요 현안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시야도 관광단지 활성화와 북일지구 수계연결사업, 광역원예출하조절센터, 맑은물 현대화 사업, 해남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신청사가 하반기 준공, 이전하면서 새 청사 시대를 열게 되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이 상반기 개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권역별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크게 달라진다. 우수영권은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개통,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가장 뜨거

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땅끝권은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과 함께 황토나리테마촌, 땅끝오토캠핑장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대흥사권은 김정원 조성사업과 맞물린 자연치유 힐링공간으로 공공화석지는 첨단과학기술이 결합된 체험공간이자 워터파크가 갖춰진 가족형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이후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고령형 상시 선별진료소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해남군은 새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평, 공개, 공정의 군정 운영 방침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청사 시대 개막을 맞아 돌발운을 갈아엎고 새로운 해남의 비전을 그려나갈 때"라며 "신청사 시대를 맞아 청정 자연의 자세를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군정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해남, 빛나는 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 장흥군, 2021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 사업 선정

장흥군은 고능력 우량 번식 암소에서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해 한우의 차별화와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에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축산사업소와 축협, 종축개량협회가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 연간 3,000두의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가운데 연간 2,000두를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브랜드 송아지는 혈통 등록 및 친자 확인을 마친 개체 중에서 발육 상태와 질병 감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한다. 세심한 검사를 통해 브랜드 귀표를 장착해 차별화하며 장흥 가축시장 상장을 통해 관내 사육 농가의 높은 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사업소 박계현 명품한우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화된 장흥한우의 명품화와 브랜드 활성화로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황선호 의원 연말 각종 시상서 수상 잇따라

# 2020년 전통기술분야 최고장인 선정

양평군의회는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황선호 의원이 지난 달 각기 다른 의정 분야시상에서 잇따른 수상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극복과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 활동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보전의식 고취 및 도시미관, 도시정원, 양서에코힐링센터, 세미원 국가정원, 두물머리 에듀팍에 조성 등에 관한 관심과 정책제안 성과가 평가됐으며 특히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에 참여해 규제개선 및 대정부건의안, 관련 조례를 제·개정을 유도하고 토종자원 보전, 양평군 내 한국특산종 조사, 가시박 등 외래식물에 대한 분포현장조사 및 관련예산 확보로 팔당수계 수질환경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박 의원은 "양평군은 팔당수계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정책과 도시

발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이번 성과를 전환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양평군의 전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 발전을 유도하는 신뢰받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선호 의원은 제작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선거공보 부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 해 12월 16일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좋은 조례분야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훈은 지방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신뢰 기반 구축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약이행과 조례 입법 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올린 의원을 선정하는 상훈이다. 특히 이번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황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법 제정은 물론 군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양평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의회는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우리군민을 위한 진정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가평군은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전통기술분야 최고장인'을 선정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장인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고 장인으로 33년을 휴고 함께 걸으며 수많은 도자기백화와 생활도자기 작품 등을 제작하고 있는 성현숙씨를 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그동안 새로운 디자인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한복 입은 여인-티팟 3인세트'로 지난해 경기도 및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동상과 입선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장인에게는 장인증서와 동판이 수여되며 매년 240만원 씩 2년간 기술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품평회 및 홍보, 직판행사도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은 지난 2016년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성 씨를 포함해 총 6명의 장인을 발굴했다. 군 관계자는 "장인은 동일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가평거주 기술자 중 전통·숙련기술의 지위 향상과 업무개선에 이바지하고 사회기여도가 뛰어난 인물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등 공정한 심사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기술자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이성용기자

# 문의 IC 가는 길이 빨라진다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소개한다

## 청주시, 교차로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청주시가 직진차량이 많고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 12곳을 지정해 좌회전 영상감응식 신호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충북경찰청과 협력해 이달 시범 운영 후 오는 2월부터 정상 운영하게 된다. 일반신호등은 정주기 운영시스템으로 신호가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통행차량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좌회전 감응식 교통신호시스템은 좌회전 차로에 영상 감지센서를 설치해 좌회전 대기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영상으로 감지해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고 보행자가 보행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지는 시스템이다.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우선 통행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좌회전·보행 신호로 인한 직진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청주시는 국지도 32호



선 7곳과 도심 내 5곳 등 12개 교차로에 좌회전 감응식 교통신호 시스템을 확대 설치했다. 특히 남일면 가산삼거리에서 문의면 남계2리 교차로 간 7곳에 좌회전 감응식 교통신호등을 적용해 문의IC와 청남대 방면 통행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좌회전 감응식 교통신호등은 한정된 도로사정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러한 특화된 교통신호시스템을 통해 여행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로혼잡비용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홍보영상 제작, 시민에게 주거복지사업 홍보

청주시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센터 소개, 주거복지사업 안내, 상담 사례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영상은 사례 중심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홍보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제작됐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에 등록해 포털사이트에 연계되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해 시민들에게 전파될 예정이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5월 개소 이후, 지역의 19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난해 시로부터 1억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그 밖에도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민·관 자원연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긴급지원주택 '청주형 디딤하우스'



운영 주거복지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깔끔미 봉사단'을 구성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정리수납,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은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주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청양군, 코로나19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전개

# 보은군,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경제 활력'



## 모바일 정보공유, 온라인 교육 등 상황별·작목별 지도

강태식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취임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도사업 시스템을 가동, 영농정보 부족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새해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 창출,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지도와 대면지도에 한

계가 있는 만큼 자료집 제작, 모바일 정보공유, 온라인 교육 등 상황별·작목별 맞춤형으로 농업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강 소장이 지휘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차세대 농촌을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정착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지도 기반 구축, 여성친화형 기술 보급을

도모한다. 또 원주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인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단계별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등 행복 농촌 조성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태식 소장은 "코로나19 시대 효과적인 비대면 영농지원을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도사업 계획단계부터 현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전직원이 열정을 갖고 농업인이 행복한 청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지역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은 관내 248개 행정마을별로 최대 2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과 고용창출이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 등 기반시설공사 146건, 하천 정비 16건, 경로당 보수 26건, 마을회관 보수 10건, 마을쉼터 정비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27건, 그 외 사업 30건 등 총 255개 사업에 4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적격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 바, 수주단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업체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 제한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2건의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 지역공예 동체 활성화사업 선정심의 승인을 통해 관련 규정을 완화한 후 사업

을 추진했으며 속리산면 사내4리의 주택밀집지역 내 전도 위험목 제거 사업과 회남면 신주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담장벽화 복원사업 또한 이번 뉴딜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상당 부분 해소 됐고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공주시, '무령왕의 해' 시각 상징물 확정 발표

##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무령왕 경위강국 선언 1500년 의미 담아



공주시가 2021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경위강국 선포 15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 시각 상징물을 확정 발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521년 무령왕의 경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각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각 상징물은 무령왕의 형상과 함께 백제 역사가 품은 아름다움과 찬란함, 예술성 등 다양한 특징을

를 조각 형태로 그래픽화해 무령왕릉과 금제장식을 연상케 했다. 또한, 의미 깊은 숫자 1500과 50을 조화롭게 표현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영원히 빛나는 무령왕의 역사를 상징화했다. 시는 디자인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시각 상징물을 올해부터 도시 마케팅 접목 및 광고 홍보물, 시민 행사 등으로 다양하

게 활용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섭 시장은 "뜻깊은 2021년을 맞아 백제의 고도 공주를 대표하는 무령왕의 업적과 그 의미를 담은 시각 상징물을 제작했다"며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재현해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2020년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 전병준 도시재생 담당주사 선정

거창군은 4일 시무식을 통해 2020년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으로 도시건축과 전병준 도시재생담당주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전병준 도시재생 담당주사는 1991년 12월부터 창원에서 공직자의 첫발을 내디디며 2001년 거창군 도시환경과 근무를 시작으로 건축 사업담당, 건축 민원담당 등을 거치면서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를 거창군에 최초로 도입해 도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내고 지역역량 강화에 힘썼다.



주요 성과로는 거창읍 죽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상동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포함한 6개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02억원을 확보했으며 거창군 도시재생 전략

성격을 적용한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및 추진단, 중간 지원조직 등을 운영해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을 발굴했고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역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거창군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창군은 1998년부터 군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해 오고 있으며 전병준 도시재생담당주사는 22번째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송인용/기자

### 임실군의회 이명로 황일권 의원, 영예의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임실군의회 이명로 의원과 황일권 의원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명로 의원은 후반기 운영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일권 의원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코로나19는 물론 태풍피해 등 재난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지역주민을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재난위기로부터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명로 의원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으로 활동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일권 의원은 "마땅

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참 기쁘다"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군민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신용습 제23대 경북농업기술원장 취임, 첫 행보 시작

#### 1. 4일 온라인 취임식, 여성 스마트팜 현장 첫 방문으로 본격 업무 돌입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4일 제23대 신용습 신임원장이 취임하고 여성 이우사촌시범마을 스마트팜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용습 신임 원장은 1988년 영양군농촌지도소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4년 성주잡외과채류연구소에서 참외 생리장해 연구를 통해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참외 전문가로 통한다. 또한 성주잡외과채류연구소장, 농업환경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등 30여 년간 농업 연구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두루 거치며 올해 제23대 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신용습 신

임원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여성 이우사촌시범마을 스마트팜 교육장을 방문해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전달하고 간부들과 현안을 점검하며 차분하게 업무를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취임인사에서 미래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현장 중심 기술개발 및 보급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농촌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의 농업전문가 육성 및 경북 농업 세계화 상주시대 대비한 미래농업 청사진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날 신용습 신임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

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며 "농업인들에게 신뢰받고 현장에 강한 농업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류석/대기자



###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헌신적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해...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선의원인 이승옥 의원은 구례군의회에서 실시구시의 맞춤형 조례와 정책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적인 네트워크 활용으로 수혜 이재민 자원봉사·기부 촉진 및 지원정책 실행 중국과 한국의 한중불교문화 교류의 중추적 역할 수행 압화작가로서 작품전시 및 재능기부 등 압화 대중화 기여 등의 다양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업적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202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이 의원은 "실용적인 맞춤형 정책을 통한 구례군의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기쁘고 함께 해준 군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구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승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전국 여성의원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남 기초대표로 활동하는 등 전방위 의정활동으로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남출/기자



###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오우선 대표이사 임명

#### 청소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포부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4일 오우선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오우선 대표이사는 30년 이상을 공직에 있으면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친화력이 뛰어난 청소년 재단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선임됐다. 오우선 대표이사는 조직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가정·학교·재단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의왕시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단 이사장인 김상돈 의왕시장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할 일

들이 많다"며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거제시, 2020년 지역복지사업 부문 유공자 표창장 전수

거제시는 지난 12월 31일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유공자 표창장을 전수했다. 해당 시상식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관계로 주민생활과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힘쓴 데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아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미숙 고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020년 맞춤형 보건복지

분야 업무추진 유공은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영찬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수상의 쾌거를 이룬데 대해 축하와 감사함을 전한다"며 "2021년에도 더욱더 소외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신동탄 롯데캐슬 나도시티**

# 남해군, 전면 개편된 문화관광 홈페이지 오픈

## 사용자와 소통하는 남해 여행 플랫폼으로 변신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2021년 1월 4일부터 사용자와 소통하는 감성 홈페이지로 새롭게 변신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기존의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남해군 여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관광지마다 특색을 담은 이야기기를 전문 작가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 사진과 텍스트의 시차를 이용한 패럴랙스 콘텐츠를 도입해 사용자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도한다. '핫플레이스, 남해' 메뉴에서는 현재 가장 핫한 여행지 등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처음만남, 남해' 메뉴 신설로 남해군

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남해 여행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 관광지와 음식점·숙박업소는 리뷰 기능을 도입해 방문자가 여행 후기와 별점을 남길 수 있고 블로그 후기까지 연동되어 사용자들끼리 직접 생생한 남해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특산물과 신규 관광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신청 메뉴를 신설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새롭게 개편된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감성 홈페이지' 컨셉에 맞춰 콘텐츠 내실화를 바탕으로



로 접근성을 극대화시켰다"며 "실시간 여행정보 공유, 방문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확대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관광홈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남경영기자

# 안산중앙도서관 제102회 겨울 독서교실 운영

## 초등 고학년 학생들, '2021 안산의 책' 어린이부문 후보도서 읽고 독후활동 통해 사고력 확장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제102회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 독서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 도서관 이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겨울독서교실은 '2021 안산의 책이 온다'를 주제로 올해 안산의 책 어린이부문 후보도서 5권을 활용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독후활동은 이

달 25~29일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까지 화성회의 '줍'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재료비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요활동은 정보활용교육 토론 수업 글쓰기 수업 나에게 주는 상 만들기 북아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아동 3명에게는 안산시 장상, 안산시의회의장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으며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독후활동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고양시 대화도서관, 2021년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으로 희망을 말하다**

**1.21. 희망이라는 높은 기쁨 번덕을 부린다**  
: 생활학자를 통한 상호부조의 모색

**2.18.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다**

**3.25. 우리는 그저 걸어서 다니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고양시 대화도서관 2021년 새해를 열며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열두달 인문학당'은 2017년부터 시작된 대화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년 기획·운영돼 올해로 시즌5를 맞는다. 이번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전반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매월 전문 학자들의 초청 강좌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총 4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봄 편은 '코로나 시대, 인문학으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매월 한번 해당 목요일에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간 고양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봄 편의 첫 강을 여는 1월에는 김대식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희망이라는 높은 기쁨 번덕을 부린다'라는 강의가 22일에 열린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지구의

생명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생명현상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공존을 위한 사유와 삶의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2월 강의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다'는 제목으로 2월 18일에 있다. 몽테뉴와 파스칼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은우 교수가 강의한다. 3월에는 최동일 숭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 교수의 '우리는 그저 걸어서 다니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강의를 통해 이동 제논의 코로나 시대에 '걷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봄 편의 마지막 3월 강의는 3월 25일에 개최된다. 고양시 대화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2021년 매달 펼쳐지는 '열두달 인문학당 시즌5'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봄 편에 이어 진행될 다음 계절 편에도 알차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21 안산의 책 어린이부문 후보도서들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 비대면 ZOOM 교육 운영 / 9:30-12:00 / 준비물: 필기도구, 재료비 6천원 -

날짜	수업내용	활용 도서
1.25.(월)	정보활용교육	소문 바이러스
1.26.(화)	'진정한 나'에 대한 토론활동	열 살, 새근감을 만나다
1.27.(수)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다섯 줄 글쓰기 수업	스파이더맨 지퍼
1.28.(목)	나에게 주는 상 만들기	협업독서리
1.29.(금)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북아트 만들기	꼭 중 하는 여우나

우수자 3명에게 안산시장상, 안산시의회의장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함  
심사기준: 토론(40%), 글쓰기(40%), 출석(10%), 독서량(10%)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20명 모집 / 2020.12.31(목) 오전 10시 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업무개시

이천시는 이천문화재단이 2021년 1월 4일자로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천문화재단은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문화재단 설립 업무에 착수한 지 2년여만이다.

이천문화재단은 그동안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11월 경기도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했으며 12월 직원 채용을 마쳤다. 이천문화재단 이사장은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앞두고 지난 1월 2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신규직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 날 이사장은 "이천의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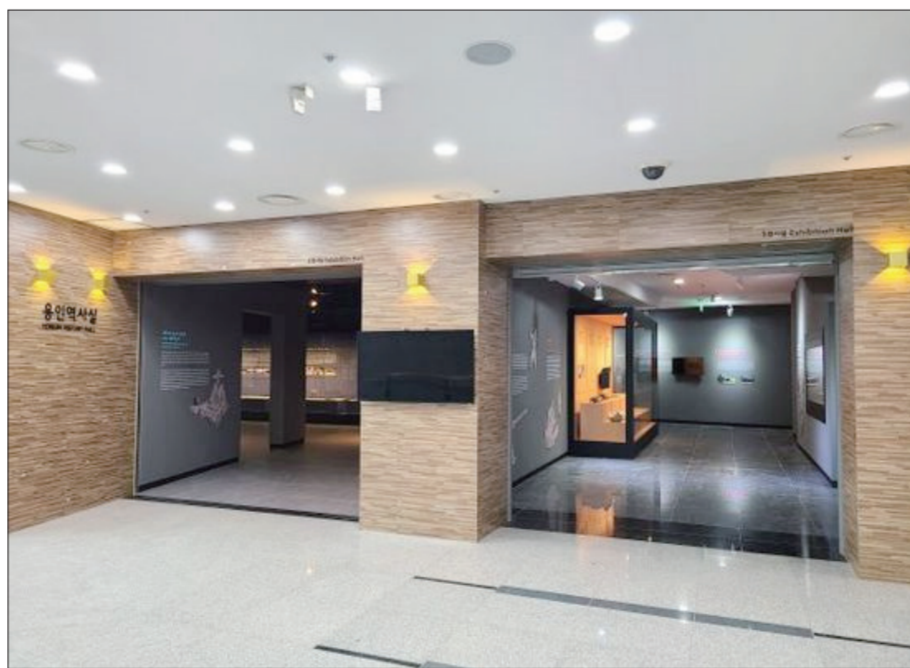
한편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은 이천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

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문화원, 예총 등 기존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해 이천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전담기구로서 이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이끌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제되는 추이에 따라, 이천시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등 축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이천아트홀, 시립박물관, 서희역사관 등 이천시 주요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문화재단직원의 신년인사에서 "지금 이천시민은 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색다른 문화행사를 기대하고 있으니 우리 이천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용인의 역사를 한 눈에" 용인시박물관 상설전시실 새 단장



## 용인시, 역사1·2실 개편...시 승격 이후 주요사건 등 라이브러리 신설

선사시대부터 독립운동사, 근현대사까지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5일 기흥구 중동 용인시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7일 시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용인시박물관은 용인동백지구 개발 당시 확인된 구석기문화층을 보존하기 위해 2009년 용인문화유적전시관으로 개관했으며 지난 2018년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개편에선 상설전시실의 보완·개선을 비롯해 경사로 등 유류 공간을 활용한 라이브러리와 로비에 관람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을 신설했다. 우선 역사인물실과 역사문화실로 나눠져 있던 공간을 용인역사실 1,2로 통합해 1전시실엔 선

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2전시실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용인의 역사를 알기 쉽게 구성했다. 이곳에선 활기산성, 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 서봉사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비롯해 용인의 주요 세계성씨 가문의 자료, 일제강점기 사진, 대도시로 거듭난 용인의 성장과정을 선보인다.

또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엔 1996년 시 승격 이후부터 약 10년 동안 용인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용인 뉴스 라이브러리 10'을 전시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고하고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대표적 역사체험공간"이라며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전시연계 교육, 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 평생학습관 제46기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 용인시, 11~15일...한식조리기능사 등 총 87개 강좌·비대면 병행

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평생학습관에서 제46기 정기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815명을 1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강좌는 한식조리기능사 등 조리분야 21개 강좌를 비롯해 헤어미용자격증 등 헤어뷰티 분야 6개 강좌, 양장기능사 등 기술실용분야 11개 강좌로 구성됐다.

또 컴퓨터활용2급 자격증 등 정보화분야 8강좌와 영어회화 등 인문교양분야 14개 강좌, 독서논술지도사 등 직업능력분야 10개 강좌 수채화 & 테셀 등 문화예술분야 17개 강좌 등 총 87개 강좌가 열린다. 신청 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용인시민이나 관내 직장인, 시에 등록된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 등이다. 12주 과정은 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헤어미용자격증 과정인 15주 과정은 5월 31일까지 교육한다. 수강료는 강좌기간 및 시간에 따라 2만1000원에서 7만8000원이며 재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순희기자

**2021년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수강생모집 제46기**

신청기간 | 2021. 1.11(월) 10:00 ~ 1.15(금) 23:00

교육기간 | 2021. 2. 1(월) ~ 5. 3(월) / 12주 강좌  
2021. 2. 1(월) ~ 5. 31(월) / 15주 강좌

신청방법 |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ll.yongin.go.kr(회원가입 필수)

모집인원 | '한식조리기능사' 등 총 87개 강좌 8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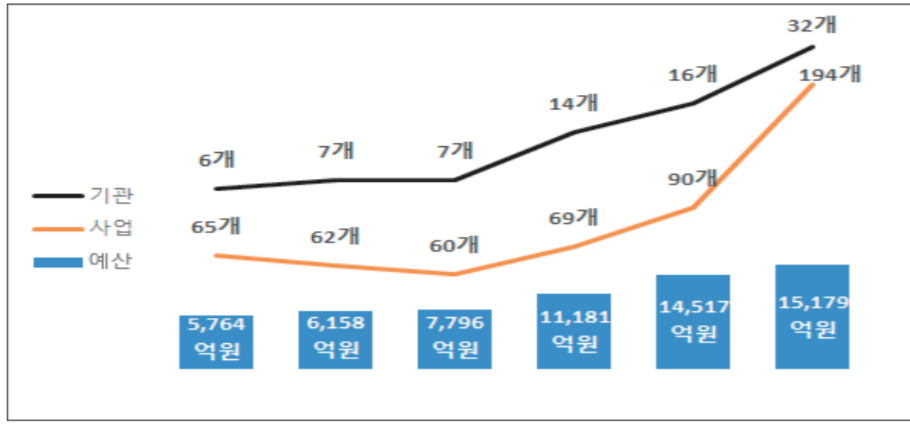
☎ 1577-1122(민원안내콜센터) 또는 ☎ 031-324-8985, 8871(평생교육과)

#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도전 기회로 창업 열기 확산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 공고를 통합해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참여기관과 공고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년까지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시행했으나,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위해 '21년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을 추가해 104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기업 육성 등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전년 대비 662억원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 창업사업 분석 결과, 중앙부처는 15개 부처에서 90개 사업에 1조 4,368억원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40개 사업, 1조 2,33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사업, 491.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사업, 457.7억원 순이다. 아울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에서 104개 사업, 811억원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14개 사업, 237억원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6개 사업, 206억원, 대전시 10개 사업, 77억원 순이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창업지원에는 서울시의 핀테크랩, 경기도의 클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육성 등 104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20년 7,315억원에서 1,430억원이 증가한 8,745억원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도 증가해 창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 창업

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와 12개 시도에서 29개 사업, 1,41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 페이지를 구성·서비스한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Startup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포털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후속 세부사업 공고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합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창업지원포털 사이트 고도화를 통해 각 부처의 창업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함양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최종 선정

### 전국 4개 시군 5개 지구 중 경상남도에서 유일 함양군 선정

함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안의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안의면 일원에 총 100세대 규모로 공모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전라북도 4개 지구와 함께 함양군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함양군은 앞으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



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3년 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읍 위주로 공급된 임대주택사업이 면지역

까지 확대되어 함양군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 (주)한국이차전지 '21년 1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선정

### 산업용 축전지 분야 강소기업

구미시는 2021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한국이차전지를 선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기계양식은 생략하고 회사기만 계약한다. 2021년 1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주)한국이차전지는 구미국가산업1단지에 위치한 구미본사기업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수·화력 발전소 전원용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축전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한국이차전지는 지속적인 기술과 경영시스템 개발로 2018년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부분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2019년 스마트팩토리 MES구축, ISO 45001인증, 2020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무역의 날 700만불 수출탑 수상 및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훈한 미래성장기업이다. 구미시는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주)한국이차전지를 2021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 예우하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시상사에 한 달간 회사를 게양한다. 김태경 대표는 "새해 첫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산업용 축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몽호/기자

# 고양시 삼송 도시재생 뉴딜지역,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8곳 공사완료

### 2021년 집수리 지원받을 주택 18곳,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

고양시는 삼송 도시재생 뉴딜지역에 추진 중인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8곳의 노후주택이 새 단장을 마쳤다. 그리고 2021년 집수리 지원을 받을 대상 주택을 오는 12일부터 신청 받는다.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삼송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노후주택을 수리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해 선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해준다. 시는, 2019년 4곳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8곳의 노후주택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들은 주택 외관 수리에 머물기보다 지붕, 창호, 담장, 대문, 옥



상방수 등으로 겨울철 단열 보완, 주 출입구 개선, 누수 방지와 같은 효과까지 특별히 볼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더욱 좋았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달라진 주택을 실제로 확인하며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과를 실감한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시로 문의전화와 방문이 많다. 주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2021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더 많은 가구에 해

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2021년 상반기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0곳이 추가된, 총 18곳의 주택이다.

현재 시는 올해 지원할 주택 18곳을 모집하며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SNS, 삼송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 영암군, '전남에서 잘 살기' 사업 운영자 모집

영암군은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잘 살기'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자를 1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잘 살기'는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며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19년에 전라남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사업이다. 주요 운영 방식으로는 농산어촌 체험과 귀농산어촌 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

형과 가공기술 등의 전문기술을 전수해 창·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형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영암군에는 지난 2년간 71명의 도시민들이 참여했고 그중 7명이 영암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으로 영암과 농촌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관심과 정착을 유도해 농업농촌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금년도 운영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1월 15일까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산어촌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농산어촌 체험마을 및 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 함께하는 감동양주

# NEW & NEW

##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에서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치료,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

## ◆ 완도가 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가?

공기 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도시보다 50배 많고 바다 정화 역할을 하는 맥반석과 해조류 숲, 깨끗한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임

## ◆ 해양치유산업, 완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